

현장시선



김훈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조사부장

고단한 경제에서 편안한 경제로 가는 어려운 길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가 1년을 넘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피로감이 깊어지고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3% 감소하고 농수축산업, 건설업 등도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최근 제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내외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면 경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을 미친 대내외 요인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긍정적 요인들은 짧은 기간 안에 건설경기 붐을 일으키는 등 제주 경제의 호황을 견인했고, 부정적 요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급격한 경기 둔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된다면 현재 제주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후대에 걸친 고단한 삶이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형성은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득 떠오르는 작은 섬나라가 있다. 북유럽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이슬란드이다. 면적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크지만 국토의 80% 가량이 빙하, 용암지대 등으로 형성돼 경제 생활환경이 척박하다. 인구는 34만 명에 불과하나 1인당 GDP는 거의 6만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다. 지난 FIFA 리사 월드컵에서 본선에 진출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이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슬란드 경제가 지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역동성이다. 아이슬란드는 잘나가던 경제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경제성장률이 2009년 -7.7%, 2010년 -2.8%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 이후 위기를 무난히 극복했으며 현재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앙은행의 독립적인 통화정책 운용, 정부의 확장적인 복지정책,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호조 등이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 출산률 등과 더불어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알루미나 제련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육성, 관광업 활성화, 수산업 육성 등 자생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꾸준히 구축한 것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는 현재 풍력 등을 활용한 청정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연료로 하는 수소전기차를 보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수소 산업 육성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자연경관을 보존해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풍부한 지열 발전을 통해 에너지 집약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제주 경제를 선순환적인 구조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제주와 아이슬란드가 관광산업이 발전했다는 점과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향후 제주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외부여건에 애매하지 않은 탄탄한 자생력 있는 경제 기반 형성이 그 핵심이다. 이에 제주 주민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고 굳건한 뒷받침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정책 수행이 긴요한 시점이다. 쉽지 않지만 도달해야 할 고지이기도 하다.

사설

내리막길 대형사고들, 근절대책 찾아라

제주시 아라동 내리막길(지방도 1131호선) 대형 교통사고가 또 발생, 큰 충격이다. 이 도로 사고는 도민들 뇌리에 잊을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악몽'이다. 한 노선(장소)에서 같은 유형의 대형 사고가 반복해서 터지는 상황 탓이다. 내리막길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대형사고에 언제까지 운전자의 엔진브레이크 사용만을 주문할 건지 답답한 현실이다. 회선교차로나 속도제한·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의 새로운 대책 마련이 누가 봐도 절실한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지난 6일 트럭 버스 등 4대 추돌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사고는 현재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것으로 압축된다. 경찰은 서귀포시에서 제주항으로 향하던 4.5t 트럭이 현장 내리막길에서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제동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베이어 록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도로상 같은 원인에 의한 사

고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8월 제주대병원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방향의 8.5t 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승용차 등과 충돌해 3명 사망, 4명 중경상 사고를 냈다. 지난 2010년 1월에도 한 중학교 축구선수단 버스가 제주항으로 향하다 제주시 남문로터리 내리막길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건물에 들이받아 37명 중경상의 사고를 냈다. 2017년 7월엔 제주대병원 앞 사거리에서 화물트럭이 같은 원인으로 차량 추돌을 피해 인근 입야로 추락했다. 내리막길 사고 예방은 운전자의 엔진브레이크 사용이나 과속금지 등 안전운전 습관에 크게 좌우된다. 그렇다고 성판악 휴게소에서 아라동까지 11km에 이르는 내리막길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현 도로 구조를 점검해 강화된 속도제한, 제주대 입구 회선교차로 도입, 과속방지턱 설치 등 여러 근절 방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확진자 속출, 방심할 때 아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좀 진정되는가 싶으면 다시 감염자가 속출하는 등 종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봄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도객 확진도 잇따라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새 8명이 발생하는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발생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7일 하룻동안 신규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4월 첫날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달에만 17명이 감염됐다. 신규 확진자 중 3명은 제주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다. 이달들어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 등 타지역을 방문했거나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했다. 큰 일이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서 한 달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다 1주일만에 500명대, 600명대를 거쳐 700명 선까지 올라가는 등 종잡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봄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입도객 확진도 잇따라 지역감염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역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4차 유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 그렇다. 실제 이달 들어 하루 3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나들이 철을 맞으면 서 입도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 알다시피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만큼 큰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열린마당

'식중독과 코로나19' 최대의 적은 방심



한봉석
서귀포시 공중위생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환자 수와 건수가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178건, 환자 수는 인구 100만 명 당 53명으로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들이 손 씻기 등 위생에 대한 관심이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석했다. 최근 5년 간 평균 식중독 발생과 비교해 볼 때 발생 건수는 52%, 환자 수는 40% 수준이다. 서귀포시 지역의 최근 3년 간 식중독 발생 환자 수를 봐도 2018년 138명, 2019년에는 11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한명도 발생하

지 않았다. 식중독 발생 유형 중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일 수가 줄어들면서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가 급감했다. 월별로 보면 통상 식중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의 경우 특별위생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등 안전관리 강화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타 지역 유행업소 사례와 같이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출입 사실을 숨기면 코로나19 특성상 초기 전파력이 높음에다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확진 환자가 언제든지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업소 이용자 종사자가 이 정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식중독이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에서 영업·조리종사자의 식품 유통과정의 온도 관리, 조리 온도준수, 안전관리 강화 등 개인위생 실천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식중독과 코로나19는 쉽게 예방할 수 있다.

뉴스-in

엘티카지노 지역 공헌사업 이행 관심

약속 어겨도 처벌 규정 없어
○...롯데관광개발이 8일 제주도로 부터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공헌사업 이행 여부에 관심.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허가 승인을 앞두고 제주발전기금 향후 3년 이내 120억6200만원 투자와 수백억원의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전무. 김재웅 제주도관광국장은 "조건 불이행 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고 변경허가 처분 등도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지도·감독을 통해 충분히 이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제주시가 주민주도의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워킹그룹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컨설팅 지원 등 소통 강화에 주력.
제주시 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을 중심으로 한 컨설팅은 올해 신규사

업으로 선정된 애월읍 중림리·소길리, 한경면 용수리를 대상으로 마을자원 발굴 등을 통해 주민 이해를 제고.
한 관계자는 "컨설팅을 계기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뿐 아니라 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마을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
○...세계섬학회가 8일 한라산 관음사 등반로 제주왕벚나무자생지에서 주한 프랑스 필립 르포르 대사 일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라산이 왕벚나무 원산지입니다'의 주제로 '2021 평화섬 춘계 워크숍'을 개최.
고창훈 회장은 "오는 9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보전회의에서 왕벚나무 자생지가 한라산임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
○회장은 "국제적으로 명확하게 인증을 받아야 향후 남북 교류 등에 있어 제주 왕벚나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
백귀탁기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
건설(상업용)
발전사업 & 유지보수
폐 태양광 철거 & 리파워링
Haenuri Energy Co., Ltd.
(주)해누리에너지
http://해누리에너지.com
T. 712-8081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 선술2리 용암동골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수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0비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포 732-5552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빙의·신들림
중세로 고생하시는분
상담환영
전화·대면상담 무료
빙의천도 최고전문가
영가천도, 빙의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064)746-0789